

화합동정

● 창립15주년 기념식

본 협회는 지난 5월14일 1층 강당에서 李相珪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5개 우수 부서와 15명의 모범직원, 76명의 10년 근속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 방재시험소 개소2주년

본 협회부설 방재시험소의 개소2주년 기념식이 李相珪이사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1일 이천군 가남면소재 방재시험소 강당에서 열렸다.

李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시험소 업무발전에 공이 많은 모범직원 2명을 표창했다.

기념식후의 식목행사에서 李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백 여명은 시험소 주변 야산에 잣나무 3천그루를 심었다.

● 87특수건물 화재분석 및 안전점검 결과 분석

본 협회는 지난 4월 전국 7대도시 특수건물의 화재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한 「87특수건물 화재분석결과」를 발행, 방재정책 및 제도개선에 참고토록 관계기관 등에 배포한데 이어 7대도시의 특수건물 3만1천8백 39건의 주

요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분석을 끝냈다.

● 보험가입확인서 발급업무 전산화

본 협회는 하루 1백여건이 넘게 접수되는 공동주택 보험가입확인서 발급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산화작업을 마쳤다. 이로써 확인서 발급시 승인청구서의 아파트 물건번호와 동·호수 및 질권자 등을 입력하면 전산으로 프린트된 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

● 소화설비개량자금 대여규정 개정

본 협회는 소화설비개량자금 및 소화기제조자금 대여규정을 개정, 지난 4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내용을 보면 자금대여금액을 현재의 2백만원이상 1억이하에서 5백만원이상 1억이하로 상향조정했고, 자금대여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 형식승인 시험업무 활발

본협회부설 방재시험소가 지난 3월8일자로 해운 항만청으로부터 선박용 방화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방화용품제조업체들로 부터 시

험신청이 몰리고 있다. 이에따라 동 시험소에서는 이들 신청제품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거쳐 부성실업의 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3kg)(4월1일자), 협동산업의 ABC급 분말소화기(12kg)(6월3일자), 남양산업의 CO₂ 소화기(6.8kg)(6월9일자)에 대하여 각각 형식승인 시험합격증명서를 발부했고, 동방전자산업(주)의 감지기 2종에 대해서도 시험하고 있다.

한편 방재시험소의 인증실에서는 삼우금속공업(주)로부터 축압식 ABC급 분말소화기에 대한 인증신청을 받고 공장심사와 인증시험을 진행중이다.

● 농촌일손돕기

본 협회는 지난 5월8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3군 1리 김옥희씨(여·66세)소유의 논 1천2백여평에서 모내기 일손을 도왔다.

● 소방시설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배포

본 협회는 화재예방 계몽활동의 일환으로 88서울올림픽에 대비, 피난시설과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용 비디오테이프(VHS) '피난시설'편 270벌을 제작하여 내무부를 비롯한 7대도시 소방관서와 사원사, 대형특수건물, 호텔, 백화점 등에 배포했다.㉞

소방계동정

● 발포성 소화장치 공급

소방설비전문업체인 동방전자산업(대표 催晚炯)은 대형화재진압용 고성능발포(Foam) 소화장치를 개발, 공급에 나섰다.

동방전자산업은 지난해 초 발포성소화장치의 개발에 착수해 1억8천여만원의 개발비를 들여 제품화에 성공하고 최근 성능 및 신뢰도테스트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포성소화장치는 가스나 유류를 취급하는 대단위공장의 화재진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력 등 별도의 전력원이 필요치 않아 정전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제품은 소화원액인 제면활성제와 물을 혼합한 소화액의 거품이 이젝터를 통해 분출되면서 3백~5백배의 비율로 팽창, 화재부위의 산소를 제거하는 한편 복사열 등을 차단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 방화관리업무 강습 실시

서울시 소방본부는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취급자 등 특수전문관계자 2천5백2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13일부터 6월29일까지 문성빌딩3층 전용교육장에서 방화관리업무강습을 소방안전협회에 위탁 실시했다.

● 제50대 내무부장관 취임

정부는 지난 5월7일자로 내무부장관에 李春九 전민정당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이어 19일자로 金榮珍강원지사를 내무부차관에 임명 발령했다.

李내무장관은 충북 제천출신으로 육사(14기)를 졸업하고 수경사정보참모, 사단포병단장, 국보위재무분과위원, 사회정화위원장, 내무부차관, 민정당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의원이다.

● 화재학회 학술강연회

한국화재학회는 지난 6월3일 한국과학회관에서 창립 1주년을 맞아 학술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임만식 소방기술사의 「화재위험평가와 처리방법」에 이어 김화중 경북대교수의 「선진국의 내화설계법」에 대한 연세발표가 있었다.

한편 한국화재학회는 지난 5월 20일자로 학회사무국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2 녹원 B/D 205호 전화 549-0125로 이전했다.

● 마포소방서 개서

지난 6월3일 마포소방서(서장 鄭忠一)가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신축청사를 마련, 개서식을 갖고 소방업무를 시작했다.

● 119구조대 발대식

서울시 소방본부(본부장 任炳玉)는 서울올림픽에 대비 화재 및 재난현장의 인명구조임무를 맡는 119구조대 발대식을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시 소방학교에서 가졌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인명구조시범과 고성능화차 소화시범 등을 선보였다.

119구조대는 대형화재 테러 특수방화 가스폭발사고 풍수해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서울시내의 종로·중부소방서와 올림픽관련시설이 있는 강동소방서에 시범적으로 1개대(20명)씩 배치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방위 및 소방국 인사

정부는 지난 5월30일자로 민방위본부장에 崔容福내무부 지방행정국장을 승진발령하고 소방국장에는 范澤均민방위학교장을 전보발령했다. 이어서 단행된 후속인사에서 지난 6월8일자로 소방과장에 權冥錫민방위국교육훈련과장을 전보발령했다. (☎)

● 손보단 테니스 대회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趙洪)는 스포츠를 통한 업계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로 손해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5월13일 여의도소재 제일테니스클럽에서 제12회 손해보험단 친선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보험공사를 비롯한 17개 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의 대회 시상결과는 청조에서는 대한화재해상보험(주), 백조에서는 국제화재해상보험(주), 여직원조에서는 대한손해보험협회가 각각 우승했다.

● 보험학회 24주년 기념식

한국보험학회는 지난 5월6일, 7일 양일간 부산대학교 상경대학에서 창립 제24주년 기념식을 갖고 정기총회와 보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보험연구에 공로가 많은 관계자 6명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 7개 논제별로 세미나를 가졌다.

● 대한사 창립 42주년 기념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사장 金聖斗)은 지난 6월 11일 창립 제42주년을 맞이하여 본사 및 재경지역 임직원 등 총 1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력비구장에서 기념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10년 및 15년 등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수여가 있었다.

● 보험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보험공사는 지난 5월 공사내에 분쟁조정국을 신설, 점증하는 보험민원을 해소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기로 했으며, 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구속력을 부여, 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 등 5개 도시에 설치된 지방상담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설치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공사는 이와함께 보험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입자와 보험자간의 분쟁조정을 전담할 일종의 민원조사관 제도인 보험음부즈만 제도를 도입, 보험민원처리를 전담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균형 성장이 부족한 우리 보험산업에 점증하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구제를 해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한재보험 창립

25주년 기념식

대한재보험은 지난 17일 오후 7시 힐튼호텔 1층 컨벤션 센터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의 일환인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이 보험업계 정화추진위원회 주최로 지난 6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주요 번화가에 서 손·생보업계 임직원 1천6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개됐다.

● 손해보험 손해율 높아

'87 사업년도를 기준으로한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은 9천 8백 48억원이며 손해발생율이 79.7%로써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것은 태풍 셀마 및 다이아, 경인지역의 집중호우 등의 풍수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

밝은 환경, 활기찬 사회